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4 No. 5, pp. 157-161, May 2019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9.24.05.157

The Longitudinal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Adolescent's Self-Esteem -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 -

Hwieseo Park*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adolescent's self_esteem. This study analyzed some data including parental attitude and self_esteem from KCYPS. Parental attitude was supposed not to change as time goes by. The analytical result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 change rate and intercept of adolescent's self-esteem were significant, which means the change pattern of self-esteem depends on adolescent. Second, positive parental attitudes influence on the change pattern of adolescent's self-esteem significantly. Third, negative parental attitude influence on the change pattern of adolescent's self-esteem significant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basing on these analytical results.

▸Keyword: Parental Attitude, Self-Esteem, Latent Growth Model

Ⅰ. 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중간단계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 및 정서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특별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성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정서는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도 비롯되지만 사회적인 상호작용과정을 통하여 유발되며, 개인의 경험적인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청소년이 태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환경으로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가 해당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연구보다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특정 시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형성되기 마련이고,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자아존중감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종단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해 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청소년 자아존중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선정하여 검증하였다.

• First Author: Hwieseo Park, Corresponding Author : Hwieseo Park
*Hwieseo Park (hspark@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19. 04. 25, Revised: 2019. 05. 18, Accepted: 2019. 05. 18.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University, 2017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양상은 어떠하며, 개인별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변화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Parental Attitude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보통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서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Baumrind(1991)[2]는 권위적, 민주적, 허용적 양육태도로 구분하고 있다. 권위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통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제한하고 많은 규칙을 부과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자유롭게 하면서도 확실한 규칙을 정하고 적절한 기대와 요구를 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허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비통제적으로 대하는 행태를 말하며, 자녀들에게 거의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통제도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지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들의 행태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자녀들이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자녀들의 인지는 부모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양육방식을 자녀가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Adolescent's Self-Esteem

Brown & Marshall(2006)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존감은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3]. 즉, 자존감은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대상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 성찰적 태도로 간주된다. 일찍이 Rogers(1995)[4]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감소되고,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되는 것을 심리상담의 주요 방향 및 성과지표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자존감이 심리건강의 중요한 성과지표란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연구이지만 종단적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최희철(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존감의 초기치의 평균 수준은 0과 달랐고, 변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5]. Steiger 등(2014)[6]의 연구에서도 12-16세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초기치 평균이 0과 다르게 나타났고, 변량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존감의 초기치는0이 아니며 개인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자존감 성장에 대해서는 무변화, 성장, 하강 등의 세 가지 가정이 있다. 우선,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무변화모형에 대해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변화 할 정도로 안정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청소년기 자존감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은 일부분의 연구들에 불과하다[7].

다음으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모형에서는 청소년기에는 인지 및 행동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상승과 하강의 방향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된다[5].

자아존중감 하강모형에서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정체성 변화를 겪는 고통, 증가되는 인지능력,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의 변화와 같은 사회 맥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아존중감이 떨어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상승모형에서는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기술의 향상, 청소년들의 자율성 증가,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 자존감이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전체를 향한 태도가 긍정적이 되어 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5][6][7][8].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하락한다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Baldwin과 Hoffmann(2002)[9]은 청소년기의 자존감이 하락한 후에 다시 상승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존감의 변화가 다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존감의 상승 및 하향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인지능력의 변화, 부모와의 관계 경험 등에서 청소년들의 경험은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의 자율성 및 사회기술의 향상, 성숙의 경험 역시 개인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기 삶에서 겪게 되는 성공과 실패에 따라 자존감 변화의 추세는 다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하게 나타나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추세가 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5][6].

이상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연령에 따라 평균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해가나, 각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율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변화의 정도와 방향은 청소년들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변화율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Ⅲ. Research Design

1. Establishing Research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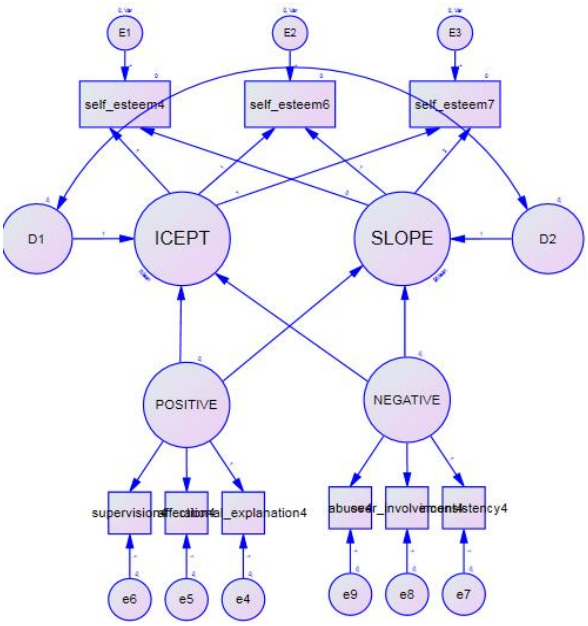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Measuring the Variables

2.1. Parenting Attitude

부모의 양육태도는 합리적 설명, 애정, 감독,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 등의 하위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합리적 설명, 애정, 감독 등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 등으로 정의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역문항의 경우 역문항 처리하였다. 즉,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각 자녀가 하위차원 각각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2.2. Self-Esteem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는 자존감 척도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자존감 5개 문항과 부정적인 자존감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는 10문항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총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5개 문항을 역산처리 하였다.

Ⅳ. Empirical Analysis

1. Data Collection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자료를 다운받아 분석하였다. 4차 년도에 측정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시간이 흐르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4.0 버전과 Amos 2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Analytical Results of Latent Growth Model for Self-Esteem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형변화 모형과 무변화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의 자존감의 선형변화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FI, TLI, RMSEA 모두 양호하였다. 반면에, 무변화 모형 경우 CFI와 TLI는 다소 양호하나, RMSEA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형변화 모형이 실증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1. Analytical Results of Latent Growth Model for Self-Esteem

model	χ 2	df	CFI	TLI	RMSEA
linear model	22.169***	3	.985	.970	.052
monotony model	156.402***	6	.883	.883	.103

다음으로 자존감의 변화는 1차년도 평균이 1.843, 변화율의 평균이 0.056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2. Analytical Results of Self-Esteem

	Estimate	S.E.	C.R.	P	Label
ICEPT	1.843	.010	177.748	***	IMean
SLOPE	.056	.006	9.069	***	SMean

3.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392.072, p=.000, NFI=.931, RFI= .881, IFI= .935, CFI= .935, RMSEM= .07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보여 주었다.

4. The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Self-Esteem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모형을 분석하였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존감의 초기값과 자존감 변화율에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율에는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Self-Esteem

			Estimate	S.E.	C.R.	P
ICEPT	<-	POSITIVE	.473	.024	19.392	***
SLOPE	<-	NEGATIVE	.059	.013	4.604	***
ICEPT	<-	NEGATIVE	-.167	.020	-8.341	***
SLOPE	<-	POSITIVE	-.101	.015	-6.875	***
self_esteem4	<-	ICEPT	1.000			
self_esteem6	<-	ICEPT	1.000			
self_esteem6	<-	SLOPE	1.000			
self_esteem7	<-	ICEPT	1.000			
self_esteem7	<-	SLOPE	2.000			
self_esteem4	<-	SLOPE	.000			
r_explanation4	<-	POSITIVE	1.000			
affection4	<-	POSITIVE	1.198	.039	30.723	***
supervision4	<-	POSITIVE	.740	.029	25.677	***
inconsistency4	<-	NEGATIVE	1.000			
over_involvet4	<-	NEGATIVE	.950	.043	21.865	***
abuse4	<-	NEGATIVE	.806	.037	21.732	***

*: p<.05 **: p<.01 ***: p<.001

이상의 분석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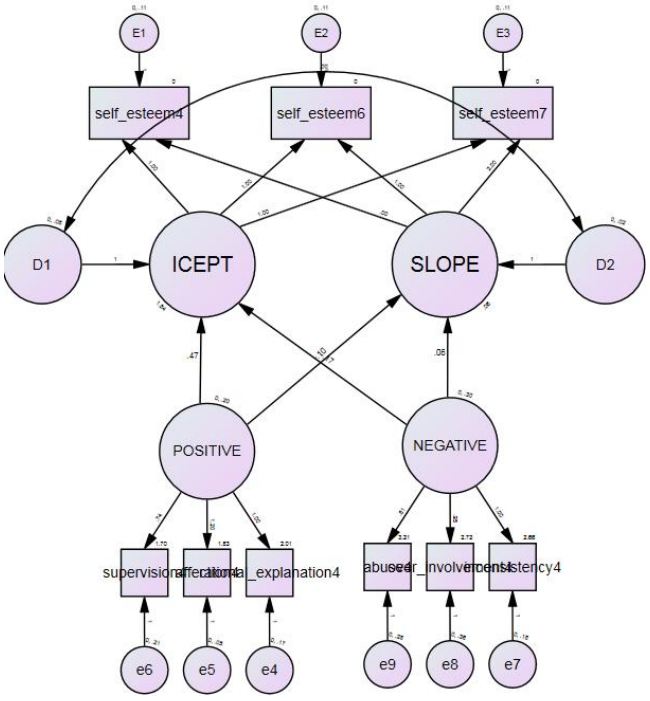

Fig. 2 Analytical Results of Research Model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이 연구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잠재성장모델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초기치와 변화율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청소년에 따라 개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가 자녀에 대해 방과 후에 어디에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외출할 경우에는 언제 들어오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며, 힘들어 할 경우 들어주고 칭찬을 통해 자녀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 보다는 왜 따라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며, 자녀의 지나친한 요구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양육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강압적 방식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1]와도 일치된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절제력을 발휘하여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정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라 함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간섭, 비일관적인 태도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는 부모 자신이 자아성찰을 통하여 교정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본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존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경우 청소년 자존감의 초기값은 높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는 더디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일수록 자존감의 초기값은 감소하지만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들의 자존감 역시 더디게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자존감의 증가속도가 더디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자존감의 증가속도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과의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동안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횡단연구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만을 분석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도 고려하여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ung, Ikjong(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3 129-166.
[2]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1, 56-95
[3] Brown, J. D., & Marshall, M. A. (2006). The three faces of self-esteem. In M.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pp. 4-9). New York: Psychology Press.
[4] Rogers, C. R. (1961/1995).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logy.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5] Choi, Heecheol (2015).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Level and Change in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and Depression in Pre-Adulthood.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3(4), 75-86.
[6] Steiger, A. E., Allemand, M., Robins, R. W., & Fend, H. A. (2014). Low and decreasing self-esteem during adolescence predict adult depression two decades la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6, 325-338.
[7] Morin, A. J., Maiano, C., Marsh, H. W., Janosz, M., & Nagengast, B. (2011). The longitudinal interplay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body image: A conditional autoregressive latent trajectory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6, 157-201.
[8] Erol, R. Y., & Orth, U. (2011). Self-esteem development from age 14 to 30 year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607-619.
[9] Baldwin, S. A., & Hoffmann, J. P. (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 101-113.
[10]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06). KYPS middle school students panel 1-6'th year User's Guide.
[11] Bronstein, P., Ducan, P., D'Ari, A., Pia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Chen, X., Dong, Q., & Zhou, H.(1997). Authoritative and aut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4),

Authors

Hwieseo Park received the Ph.D. degrees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1993. Dr. Park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at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Non-profit Marketing, Social Welfare Policy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etc.